

진도 전남병원에 소아청소년과 개설...내년 7월 진료 시작



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 선정 목포·해남군 등 외지 병원 방문 불편 사라져

보건복지부의 '2022년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기관' 공모사업에 남우의료재단 진도전남병원(이사장 김도균)이 선정돼 진도군에서도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진료를 받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소아청소년과 없는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의료취약지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했다. 군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중순 보건복지부의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진도군의 소아청소년과 개설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될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선정 평가회를 거쳐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진도전남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 받는다. 진도전남병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문의 1명, 간호사 5명 등을 배치해 내년 7월부터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게 된다. 특히 진도군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지역에 상주함에 따라 그동안 진료를 받기 위해 목

포시와 해남군 등 외지로 나가야 했던 주민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철 병원장(진도전남병원)은 "진도전남병원에 소아청소년과가 개설되면 지금까지 목포시 등 대도시로 진료를 위해 다녔던 시간과 경비 절감이 기대된다"며 "전문 의료진과 의료장비를 갖춰 군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 의료 복지 사각지대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진도군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2023년 토끼띠 새해 선물은 작두콩차로 비염·알러지·염증 등 효과 탁월해 면역력 증진에 효과 만점



간편하게 마시면서 몸까지 챙길 수 있는 '작두콩차'는 이제 누구든 쉽게 접할 수 있는 웰빙식품 중 하나이다.

공각지의 모양이 작두를 닮았다 해서 '도두(刀豆)'라고 불리는 작두콩은 비염에 특히 효과가 좋다고 알려졌으며, '본초강목'에서 '장과 위를 보호하고 속을 따뜻하게 하며 신장 기능 증진을 돕는 약재'라고 소개하고 있다. 더불어 작두콩은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A, 비타민 C 등에 함유 및 소염 효과와 더불어 면역력 증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2015년 8월 강진군 군동면으로 귀농한 송용기, 홍여신 부부는 '강진도깨비농장(도두밭)'을 창업해 친환경농업으로 재배한 작두콩차를 연구·개발 및 판매하고 있다. ㈜도두밭은 친환경 인증기관으로부터 무농약인증과 GAP 인증을 획득했으며, 2018년에는 중국 최대 쇼핑몰인 알리바바에 입점해 2019년 매출 2만 불을 달성했다. 2020년에는 미국 아마존 전판 명품 브랜드관에 입점 후 3만 불, 2021년에 유럽 아마존에 입점 후 3천 불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 8월 말에는 스틱형 액상차로 개발한 상품을 미국 아마존에 수출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도두밭에서 만든 작두콩차 선물세트(작두콩차 80g 3팩 + 티백 2박스의 가격은 38,000원이며, 초록민을 쇼핑몰(http://www.gangjin.center)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초록민을 직거래지원센터(☎ 061-433-8844)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해남군, 전남도 농식품 유통평가 '대상' 수상

해남군이 2022년 전라남도 농식품유통 업무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농산물 농식품유통 업무평가는 농특산물 판촉과 유통, 농식품산업 기반구축 및 품질관리, 쌀 판매와 브랜드 쌀 육성,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전국단위 공모 선정 등 총 4개 분야 14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해남군은 올해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 등 농식품분야 공모사업을 통해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지역 먹거리 지수 A등급, 원예산업종합평가 A등급, 친환경쌀 미국 수출 등 전 분야에 걸쳐 월등한 성과를 거두며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완도군보건의료원, '어르신 건강관리' 우수 기관 선정

완도군보건의료원은 지난 20일 「2022년 건강증진사업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 통합 성과대회」에서 '인공지능(AI)·사물 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한 보건기관에 상을 수여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인 인공 지능(AI)·사물 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386명에게



활동량계, 체중계 등 스마트 건강관리 기기를 지원하고, 기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건강 취약 계층을 위주로 사업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550-6742, 67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장흥군, 베트남 달랏시에 김·표고버섯 수출 시동 방문 수출 협의...2023년 베트남 현지 관측행사 및 업무협약 체결

장흥군이 우호교류도시인 베트남 달랏시를 방문해 본격적인 수출 협의를 나눴다. 군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특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위해 베트남 달랏시 현지를 방문했다. 이번 협의에는 조석훈 장흥군 부군수를 비롯한 장흥군 장흥무산김(주) 대표 등 장흥군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달랏시 대표단이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방문한 데 대한 답례 방문으로 군 대표단은 제9회 달랏 꽃축제 개막식에도 초청됐다. 장흥군은 11월 친환경 과래김, 도시락김, 자반볶음 등 8개 가공식품 2톤 2,800만원 규모의 물량을 첫 수출해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톤 티엔 산 베트남 달랏시 장과 면담하고, 장흥군 농·수·축·임산물 수출 및 판로 확대와 교류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베트남 달랏시 현지에 조성된 장흥군 특산물판매장을 방문해 품목 및 소비 성향을 분석하는 등 수출 본격화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어 달랏시 버섯연구소를 견학하여 교류 확대 방안 논의도 병행 추진했다. 또한, 원광대 의료 대표단과의 동행을 통해 달랏시 보건소와 공동 운영중인 원광대학교 한의료센터를 방문했다. 이를 통해 30만명 이상의 달랏시의 인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인적 교류 및 장흥군 미래전략산업인 통합의학·생물의약품산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조석훈 장흥군 부군수는 "장흥군과 달랏시 양 지역은 서로 가지고 있는 유사한 자원이 많아 공동발전이 기대된다"며 "수출을 통해 무산김, 버섯 뿐만 아니라 장흥군을 대표하는 특산품을 알려 농가소득을 확대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내년 상반기 중 현지 베트남 달랏시에서 대대적인 관측행사를 통해 특산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하반기에는 정식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해 양지역 간의 교류를 본격화 할 계획이다. 장흥=김도영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